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에서 '고려청자' 발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문화재 전수 조사 진행해야"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 다수가 발견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근거로 새만금신공항 건립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자료를 내고 "신공항 예정지 북쪽에 임시 수로를 내기 위해 갯벌을 2m가량의

깊이로 파낸 모래 더미에서 고려시대 청자인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에 발견된 청자는 임시 수로를 내기 위해 굴착기로 갯벌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완전한 형태로 있던 유물 일부가 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약 700여 년간 갯벌에 묻혀 있던 모습과 달리 깨진 단편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녹청자 그릇이 발견된 지점과 반경 20m 안에서 추가로 발견된 점을 미뤄볼 때 과거 침몰선의 물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당시의 해저 문화층(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물건들 및 흔적을 가지고 있는 층)이 뚜렷이 형성돼 있고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인 지금의 새만금호 유역은 해양생물의 집산지, 해운업의 이동로, 그리고 다양한 시대를 품어왔던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개발만을 위해서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 대한 전라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매장 문화재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하고 매장된 해저 문화재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왼쪽부터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 추가로 수습된 청자 모습. (사진=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여순사건' 창작발레로 만난다

부안예술회관에서 22일 '시월, 애기섬'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시월, 애기섬'을 다가오는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 예술회관 2층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애기섬'은 74년 전, 1948년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아픈 흔적으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을 발레로 제작한 공연으로, 해방 이후 극도로 불안한 죄와 우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적사건을 지역사회의 힘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바람으로 기획된 공연이다.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내용으로, 김하정 감독의 안무에 국립발레단 주역 출신의 발레리노 윤

전일, 현대무용계 스타로 손꼽히는 안남근, 발레리나 황수진 등이 출연하여 창작안무와 퍼포먼스로 관객을 매료시킬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이며, 공연단체인 나라발레씨어터는 지난 2014년 창단된 단체로 창작발레 '두리의 비상', '데미안', '흑두루미의 꿈', '윤동주 100년의 기억' 등 다양한 지역 소재의 작품을 창작해 선보이고 있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부안예술회관에서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다. 예매티켓 수령은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신구법천문도 병풍' 보물 지정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 중인 '신구법천문도 병풍'이 지난 6월 23일 보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르면 '신구법천문도 병풍'은 조선의 전통적인 천문도(구법천문도)와 서양에서 도입된 새로운 천문도(신법천문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동서양의 천문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천문도는 총 8폭으로 구성됐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1~3폭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천문도인 '천상열처분야지도'를 그렸고, 4~7폭에는 서양의 천문 지식이 담겨 있는 천문도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기준으로 '황도복성도'와 '황도남성도'를 그렸다. 마지막 8폭에는 태양과 달, 토성, 목성 등을 그린 일월오성도를 배치했다. 이는 1395년(태조 4년) 제작된



조선의 천문도와 서양 선교사 코플러의 천문도에서 영향을 받은 서양식 천문도가 그려져 있어 동서양의 천문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천문도가 그려지는 과정에서 활용되던 천문학, 기하학, 수학 등 당시 과학기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한편 '신구법천문도 병풍'은 현재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에 전시돼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하모니카·클래식기타의 만남

23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기타리스트 박지형 '작은 악기, 큰 울림' 공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3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기타리스트 박지형의 '작은 악기, 큰 울림'을 전주한벽문화관 한벽 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2022 우수작품시리즈 'Fantasie' 첫 번째 주자였던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깊이 있는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 실력으로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에 두 번째 무대인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기타리스트 박지형의 '작은 악기, 큰 울림' 역시 해설과 연주가 곁들여진 공연이다. 하모니카와 클래식기타는 친숙하지만 좀처럼 무대에서 보기 힘든 조합으로, 두 악기의 만남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날 박종성과 박지형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13번 변주곡', 브레드 'If', 나르시소 에페스 '사람의 로망스', 프란시스코 타레가 'Sueno', '알함브라 궁전의 노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미국의 소프트 록 밴드 브레드와 누에보로코의 창시자 피아졸라와 같은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들을 '하모니카'와 '기타'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은 2002년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청소년 트레블로 솔로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 하모니카 솔리스트로서는 최초의 국제대회 수상자가 됐다. 또한 2008년 동 대회에서 총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자작곡으로 한국인 최초 트레블로 솔로 부문 1위, 재즈 크로매틱 솔로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부터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곡투어콘서트 솔리스트로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이탈리아 피사 스테파노 국제 클래식기타 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스트라타 국제 기타 콩쿠르, 세계 최고 권위의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의 제50회 미켈레 피탈루가 국제 기타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또한 세계적인 음반사 나소스(Naxos)에서 2020년 2월 전 세계에 데뷔 음반을 출시 발표했다.

한편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백제왕궁박물관으로 나들이 오세요"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밤하에 가는 박물관 박물관'을 내달 5일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진행한다.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는 지난 5월 성황리에 마친 '고백 다감 박물관 여행'의 인기에 힘입어 기존 체험을 업그레이드한 RPG(가상세계에서 진행되는 게임) 미션체험여행 2판이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진행하며 박물관에 숨겨진 미션을 푸는 RPG 체험, 무도등 만들기, 왕궁 달빛 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행되는 RPG체험, 백제왕궁박물관 캐릭터를 활용한 무도등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체험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왕궁의 서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며 행사에 참여한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유선(063-850-4636, 4736)으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팬레터' 공연

국내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뮤지컬 '팬레터'가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뮤지컬 '팬레터'는 1930년대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인 이상, 김유정 등과 순수문학단체 구인회의 에피소드를 모티브 삼아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모던 팩션(Faction) 뮤지컬이다.

천재 소설가 김해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정세훈,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까지 세 인물을 주축으로 순수 문학을 한 문인들의 예술혼과 사랑을 매혹적으로 그려내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대중성과 작

품성까지 인정받은 웰메이드 창작뮤지컬로 각광을 받아왔다.

또한 다양한 창작뮤지컬의 기획개발과 해외 진출까지 성공시켜 온 강병원 프로듀서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한재은 작가, 박현숙 작곡가 콤비, 그리고 세련되고 디테일한 연출의 김태형 연출가, 스토리와 캐릭터의 감정선을 섬세한 안무로 풀어낸 신신호 안무가 등이 연극의 퀄리티를 높일 예정이다.

뮤지컬 팬레터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총 4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14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이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